



덕유산국립공원, 다양한 비대면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화상시스템(구글미트)을 활용한 온라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숲속놀이터'는 미래세대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숲속 놀이 참여 기회를 주며, 환경리더 육성 및 올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덕유산국립공원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이 제한된 아이들에게 비대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간접적으로 동·식물의 자연 활동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화상시스템(구글미트)을 활용해 실시간 양방향 소통하며,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곤충의 생김새 알아보기, 풀벌레 소리 듣기(ASMR), 율동 따라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우주=전문선 기자

전북농기원, 중앙 경진대회 '석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상·우수상 수상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가공사업장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공동 주관한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인중 사업자부문 공동경영체 1위(대상), 개별경영체 3위(우수상)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시군 추천, 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 서류심사 후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진행됐으며,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전국 8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공동경영체 분야 대상을 수상한 '군산 농부의 식품공장 영농조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육성된 경영체로 63명의 조합원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초장, 잼, 소스류 등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농촌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동급식과 연계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높은 성과를 거뒀다.

개별경영체 분야 우수상을 받은 '정읍 한영석의 발효 연구소'는 전통 누룩 복원으로 발효식품의 전통성 확



보에 기여하고, 자체 누룩제조 기술 보유로 균질한 제품을 대량화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농업기술원 이정민 과장은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소규모 가공제품 우수사례가 새로운 유통·마케팅 모델로 확산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망성면 이성고구마·자율방범대, 이웃사랑 실천

익산시 망성면 이성고구마, 망성면 자율방범대(대장 백준용)는 최근 추석을 맞아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겨울이불 20세트(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소외계층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아 기탁한 것이며, 이 물품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2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망성면장 및 직원들이 직접 기구에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게 되었다.

이성고구마 이화홍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의 저소득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영석 망성면장은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이성고구마, 망성면 자율방범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의 온기로 가득한 이불을 전달하고 모두 함께 행복한 망성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시, 안심식당 48개소 지정·이용 홍보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48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먹기(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등 제공 등) ▲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제 비치 등 4가지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이다.

안심식당 지정 업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지역명과 안심식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티맵과 전북도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스테이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손 모양의 그림과 '스테이 스트롱'이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센터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여성단체협의회를 지명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운애 센터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센터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노인 인권지킴이 10명 선정

남원시가 노인 학대 없는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등을 위한 노인인권복지지킴이 6개소를 인권지킴이 시설로 지정하고 노인인권지킴이 10명을 선정했다.

노인 인권지킴이단 사업은 소외된 노인에게 대한 차별대우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지역을 노인 친화적이고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대표나 오랜 공직경력자 및 타 시설 종사자로 선발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최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으로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연이어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통 네비게이션' 및 '퍼스널 이미지에 이력 자격과정'으로 소통 네비게이션은 남·여학생의 갈등 예방 훈련을 통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및 존중, 공감 능력 향상과 더불어 젠더 감수성 및 성(性)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DISC 진단으로 자신의 성격과 행동유형 특징을 파악하고, 타인의 다른 점을 받아들여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5명의 여학생이 참여한 퍼스널 이미지에이킹 자격 과정은 개인의 종합적인 이미지 상태를 분석하고, 패션 및 컬러에 대한 기본적 실무를 익힌 후 이미지에 맞는 컨설팅이 가능한 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진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사후 방역



은 물론, 마스크 제공 및 발열체크,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및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황은희(간호학과) 교수는 "소통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은 남성·여성의 고유한 특성과 내면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제우체국·김제사회복지관, 나눔꾸러미 전달

김제우체국(국장 김두기)은 추석을 맞아 김제사회복지관과 풍성한 한가위 맞이 나눔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이 중단된 김제시 김산동 지역 내 저소득 노인 100명에게 추석을 맞아 나눔꾸러미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동안 식사 대체 물품을 지원하여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계란, 라면, 떡 등 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제우체국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추석맞이 나눔꾸러미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사회복지관 김준수 관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을 담은 김제우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읍,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진안군 진안읍(읍장 배만기)은 72주년 국군의 날, 제4352주년 개천절, 574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벌였다.

진안읍은 국가 경축일과 기념일이 많은 10월을 맞아 국민통합을 이루고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지난날 29일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읍내 일원에 태극기 물결을 이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시가지 가로변 가로기를 게양하고, 진안읍행정복지센터 청사 및 관내 모든 마을회관의 국기게양대를 정비한다. 또한 도로변 및 각 기관에 설치된 태극기를 전수조사해 오염·훼손된 경우는 적급 교체하는 등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마을방송, 각종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태극기달기 운동'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동주택 등에는 안내방송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알림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2학기 원우모집= 과정명: 스피치기법과·스피치최고지도사과·웃음치료과, 매주 1회(야간, 주간 수업), 대상: 대학생, 성인(일반인), 문의: 285-6676, 281-7246, 010-7304-5665.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to the National Child Helpline (112). Key points include: reporting is possible and helpful, reporting helps protect children, and reporting is a heroic act. Contact information: 112, National Helpline, or local child protection centers.